

# 생태문명시대 준비와 함께 감염병 피해 최소화할 것

올해 전북도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안정되고 평안해야 멀리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뜻의 '영정치원(寧靜致遠)'으로 정했다. 더 멀리 나아가고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의 삶이 평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전북도정은 생태문명시대를 준비하는 일과 함께 감염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돌보고 어려운 민생경제를 정성껏 살피겠다고도 했다. 이에 본보는 송하진 도지사를 찾아 올 한해 포부를 들어본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긴급추경예산안 편성 등 방역 철저히 해와 감염병 극복할 때까지 도정 역량 모두 쏟을 것

올해 국가예산 역대 최대규모 전북형 뉴딜예산도 포함돼 민생경제 보살피는데도 총력

질 없이 조성하겠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2년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라북도도 함께 하는 조직위원회가 출범해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기반시설 설치와 홍보활동, 세계잼버리 개최 효과의 14개 시·군 파급·확산을 위한 잼버리 프로그램 발굴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총사업비를 증액하게 돼 운영 준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증액된 사업비는 846억원으로 대회 유치 당시 승인받은 491억원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규모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216억원으로 당초 승인된 54억원보다 4배 확대된 규모다.

2016년 대회 유치 시에 승인받은 총사업비는 행사기간 직접 소요경비 위주로 편성돼 있었다. 상하수도 및 전기 통신시설, 대집회장 등 행사개최를 위한 필수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대회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힘을 모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잼버리 준비종합계획과 잼버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계획 등을 통해 구체적 사업비를 산출해 총사업비 변경을 이뤄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야영장 상부시설과 전력시설 설계가 시작된다. 상하수도 및 주차장, 그늘 조성 등 기반시설도 조성된다. 프로그램 운영, 수송, 환경, 물자, 안전 등 분야별 세부 운영 계획도 구체화될 것이다.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코로나19 이후 국제청소년행사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도정 사상 최초로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올해 국가예산 운영 방향은?

올해 전북 관련 국가예산은 전년보다 8.7% 늘어난 8조2,675억원이다. 역대 최대규모로 코로나19 극복과 전북경제를 생태문명 중심으로 재편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생태문명시대 선도를 위한 전북형 뉴딜예산에 5,477억원을 확보했다. 농생명·전통문화와 ICT·홀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사업과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등 그린뉴딜 사업의 빠른 발전이 기대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조선해양 설치운송인프라 구축, 군산항 7구두 야적장 구축,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금강지구 영농편의증진사업 등 신규사업 352건의 예산도 반영됐다. 이들 사업은 연차적으로 3조 9,047억원까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전북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융복합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규제자유특구, 탄소융복합규제자유특구,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예산을 확보해 전북 과학기술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장기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 등 예산확보로 농생명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된다.

새만금은 물류체계 트라이포드와 2023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확보해 개발 속도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주요 국도사업, 탄소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 SOC 사업예산도 다수 확보했다. 세계세비엔날레 전용관 건립과 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서생생거터 유적정비사업 예산으로 전북의 역사와 정체성 정립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성공은 국민의 참여에 달려 있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생활의 과학화를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어려워진 민생경제의 회복과 서민복지에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올해 우리 전북도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정된 도정을 만드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산업화 시대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생태문명시대의 전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안정과 평안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유효상 기자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모두 바꾼 한 해였습니다. 또 그 기세가 여전한데, 전북의 방역 상황은?

전국적 대유행이 심각하다. 전북도 안전하지 않다. 병원과 요양원, 교회, 공장 등의 집단감염과 갑작, 소모임, 가족 행사 등 일상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전국 최초로 긴급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행정명령 대상시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철저한 방역과 민생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왔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 때까지 도정의 역량을 모두 쏟겠다.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감염을 막는 가장 좋은 해법이다.

감염위기와 함께 민생경제도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정부 추경과 함께 4회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해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챙겼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집중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카드수수료 할인, 화물기사와 택시, 전세버스 종사자 지원, 관광업계 지원,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 지원과 일자리 제공에 노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중이다.

기업의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연말 산업부에 군산형 일자리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1월말 지정이 되면 GM철수로 잃었던 일자리 2,000여개를 회복하고 침체됐던 군산경제를 회생하는 의미가 있다. 올해 초 선정한 전국최대 규모의 고용안정전제 대응패키지를 통해 익산, 김제, 완주에서 1만 개의 일자리를 확충하게 됐다. 전북형 두드림 일자리정책으로 11만7,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했고, 코로나19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일자리 1만9,755개를 제공했다.

새만금 개발이 가시화되고 재생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기업 유치도 성과를 거뒀다. 최악의 불경기에 이뤄

진 유치여서 더욱 뜻깊다. SK컨소시엄, 일진머트리얼즈, 마더스제약, 케네비컴 등 4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투자 예정액은 3조 2,085억원에 달한다. 고용규모 역시 4,700여개에 이른다.

올해 국가예산은 역대 최대규모인 8조원을 돌파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 SOC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연계해 도 차원의 보완 대책을 수립하는 등 민생경제를 세심하게 보살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는 큰 기쁨을 손꼽았는데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발전전략을 만들고 수행하는 종합 컨트롤 타워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로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조성이라는 비전의 실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국가 탄소산업의 종합 컨트롤 타워로서 조기에 안착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 도내 유관기관과 탄소산업발전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과 협업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수행할 최적의 과제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 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탄소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제도와 지원 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노력하겠다. 도지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특구 운영을 통해 탄소융복합제품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특구에서 개발하는 제품에 전북의 탄소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소재의 국산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연대 협력하고 특구를 운영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에 노력하겠다. 작지만 알찬 기술을 갖춘 탄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올해 착공하는 탄소특화 국가산단도 차